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徐程錫*

1. 머리말
2. 의자왕의 전략
3.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실상
4. 맺음말

1. 머리말

계백장군을 비롯한 백제의 5천 결사대가 신라의 5만 군대와 맞서 싸운 황산벌전투는 관산성전투 및 백촌강전투와 더불어 백제사의 향방을 결정지은 중요한 전투 중의 하나였다. 관산성전투가 신라의 한강유역 점유를 기정 사실화하고, 신라가 백제에 대해 우위에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면, 백촌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마찬가지로 황산벌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백제는 실질적인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 공주대학교 교수

이러한 중요성 때문인지 관산성전투와 백촌강전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있었지만¹⁾ 황산벌전투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회가 없었다.²⁾ 관산성전투나 백촌강전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사료가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사료들을 복원하고, 산성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여 황산벌전투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황산벌전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서 의자왕의 전략을 살펴보고, 아울러 신라군의 진격로와 당시의 전투방식 등을 종합해서 황산벌전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많은 비약과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정(叱正)을 바랄 뿐이다.

2. 의자왕의 전략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황산벌전투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소략하다. 따라서 황산벌전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백제는 10배나 많은 신라군을 상대로 4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4번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5번째에는 왜 패하게 되었는지 등등 정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황산벌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의자왕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1) 관산성전투에 대해서는 옥천문화원 주최, 옥천향토사연구회 주관으로 2008년 12월 15일에 『관산성전투의 재조명』이란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으며, 백촌강전투에 대해서는 백강전투 1,340주년을 맞이하여 서천군 주최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관으로 2003년 9월 4일에 『백제부흥운동과 백강전쟁』이란 국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2) 그동안 황산벌전투에 대해서는 황산벌의 위치와 주변 관련 관방유적을 조사한 지표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충남대 백제연구소, 『百濟 黃山別戰蹟地』, 2000).

자 한다. 의자왕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A-① 왕이 이를 듣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 싸우는 것과 수비하는 것의 마땅한 계책을 물었다. 좌평 의직(義直)이 나와 “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 왔으므로 물에 익숙하지 못한 자는 배에서 반드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처음 육지에 내려서 군사들의 기운이 온전치 못할 때에 급히 치면 가히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당나라의 후원을 믿는 까닭에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만약 당나라 군대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기세 좋게 진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나라 군대와 먼저 결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라고 말하였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A-② 달솔 상영(常永)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와서 속히 싸우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예봉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라 사람은 이전에 여러 번 우리 군사에게 패배를 당하였으므로 지금 우리 군사의 위세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당나라 군대의 길을 막아 그 군사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 한쪽의 군사로 하여금 신라를 쳐서 그 날카로운 기세를 꺾은 후에 형편을 엿보아 세력을 합하여 싸우면 군사를 온전히 하고 나라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저하여 어느 말을 따를지 알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사료 A〉는 나당연합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백제 조정 내부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소개한 것이다. 설마 설마 하던 당나라가 13만 명을 파병하고, 이에 호응하여 신라 역시 김유신이 거느린 5만의 군사가 백제를 향해 진격함에 따라 의자왕은 이러한 나당연합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신하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때 좌평 의직은 사료 A-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나라 군대와 먼저 싸울 것을 주장하였고, 달솔 상영은 사료 A-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군과 먼저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의견이 갈리자 의자왕은 어느 말을 따를지 결정을 못하게 되었다. 의자왕이 과

단성이 부족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은 두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나라 군대는 20일 이상 바다에서 생활했던 만큼 몸이 피곤하고 사기가 한풀 꺾인 상태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의적이 당군과 먼저 결전할 것을 제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의적은 당군과 신라군 중 피로에 지친 당군 쪽과 싸우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보았고, 신라군과는 굳이 싸우지 않고 시간을 끌기만 해도 당군이 불리해지면 저절로 물러날 것으로 보았다.

당시 백제의 군사력으로 18만이나 되는 당군과 신라군을 동시에 대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둘 중 한쪽과는 싸우고, 다른 한쪽은 진격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신라군과 당군이 서로 만나 말 그대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었다. '연합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장기전에 돌입하면 원정군이 불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³⁾ 이것이야말로 의자왕의 전략이었다. 그런 점에서 의적이 당군과 먼저 결전할 것을 제안한 것은, 현실적으로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당군이 지쳐 있었던 까닭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도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당시 당군이 백강으로 들어와 상륙할 수 있는 곳은 伎伐浦뿐이었다. 일찍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예견한 성충이 그 해법으로 당나라 수군(水軍)이 기벌포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제시한 것도⁴⁾ 그 때문이다. 그런데 성충이 얘기한 기벌포는 장암진성(長巖鎭城)이 자리하고 있는 현재의 서천군 장항읍 장함리 일대라고 생각한다.⁵⁾ 금강의 북안(北岸)인 셈이다. 따라서

3) 노중국,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44쪽.

4)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6, 義慈王 16년조. “成忠瘦死 臨終上書曰…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5) 沈正輔, 『白江의 위치에 대하여』, 『百濟史의 理解』, 학연문화사, 1991; 심정보, 『長巖鎭城의 역사적 배경』, 『舒川 長巖鎭城』, 국립부여박물관, 1997, 22~23쪽; 이영 『진포대첩의 현장은 어디인가』, 『서천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연구』,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04, 78~80쪽; 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백제사연구회, 2007, 243쪽.

성충은 아예 기벌포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의직은 기벌포로의 상륙을 유도하여 피로에 지친 당군이 상륙한 다음에 공격함으로써 쉽게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패하더라도 당군이 금강 북안에 상륙한 만큼 금강 남안(南岸)에 자리한 사비도성을 공격하거나 백제의 동부전선을 돌파한 신라군과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금강을 도강(渡江)하도록 함으로써 당군과 신라군이 만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⁶⁾ 더구나 이곳에는 성흥산성이 있다.⁷⁾ 당군이 신라군과 만나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백제에게 유리했던 만큼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당군과 신라군이 함께 만나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의자왕의 전략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영(常永)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직과 달리 신라군과 먼저 결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라군과 당군이 쉽게 합류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자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당군과 신라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군의 진로를 막을 것(宜塞唐人之路)'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당군의 진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추측을 하자면 기벌포를 봉쇄하여 아예 상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성충(成忠)이 제시한 방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기벌포에 상륙하지 못하면 당군은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당군의 발을 해상에서 묶어 놓고 있는 동안 신라군과 결전하지는 것이 상영의 주장이었다.

당군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작전은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배를 타고 온 군대가 상륙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륙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일방적으로 상대편의 활이나 노(弩)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⁸⁾ 당군이 비록 13만의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상륙지점이 기벌

6) 기벌포로 상륙했을 때의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는 김영관도 지적하고 있다(김영관, 앞의 논문, 2007, 247~248쪽).

7) 서정석, 「사비도성의 방비체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120쪽.

8) 이희진, 『전쟁의 발견』, 동아아시아, 2004, 227쪽.

포가 분명하다면 백제군 역시 미리 대기하고 있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상륙하는 순간이야말로 백제군의 공격에 당군은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상영이 신라군만 막으면 당군은 의외로 쉽게 격퇴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설령 격퇴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당군과 신라군이 만나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는 시간이 지연되면 원정을 떠난 당군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을 터이고, 굳이 백제가 당군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상영이 당군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신라군과 대적할 것을 주장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상영의 계획 또한 의자왕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의직과 상영의 계획은 언뜻 보면 정반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군과 신라군의 합류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파악한 점에서는 같다. 또한 신라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동일하였다. 당군이 불리하게 되면 신라군은 두려워하여 감히 쉽게 진격해 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직의 주장이나 백제군에게 이미 여러 번 패하여 백제군의 위세만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상영의 주장은 다 같이 신라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군을 상륙시킨 다음에 맞서 싸움으로써 신라군과 합류하는 것을 저지할 것인지,⁹⁾ 아니면 당군을 상륙시키지 않은 채 신라군과 맞서 싸워 당군과 합류하는 것을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전략은 동일했지만 그러한 전략을 실행시킬 전술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의자왕이 결단을 못 내리고 고민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당군과 신라군이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전에

9) 물론 여기에는 당군이 배에서 내려 막 상륙을 시도할 때 공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배를 타고 온 군대가 상륙할 때에는 미리 매복해 있던 상대편 군사의 집중적인 화살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희생이 나오는 것도 이때다(이희진, 앞의 책, 2004, 227쪽).

돌입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의자왕 역시 마찬가지였지만¹⁰⁾ 전술적으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거리였던 것이다.

어쩌면 의자왕의 고민은 이 두 가지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 성충의 건의가 그것이다. 의직과 상영도 성충과 마찬가지로 기벌포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같다. 앞서 살펴본 두 사람의 주장이 이를 입증해 준다. 다만 성충과 달리 두 사람은 탄현(炭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듯하다. 앞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두 사람은 신라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탄현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지 않더라도 신라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의자왕은 성충, 의직, 상영의 주장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흥수(興首)에게 계책을 묻자 흥수는 성충과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이 는 기벌포와 탄현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단지 성충 혼자만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의자왕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의자왕이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인지한 것은 대체로 당군이 덕물도(德物島)에 도착한 6월 21일 무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¹¹⁾ 이렇게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인지 나당연합군을 격퇴시키기 위한 백제 조정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B. 이때에 대신(大臣)들은 믿지 않고 말하였다. “흥수는 오랫동안 잡혀 갇힌 몸으로 있어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인 만큼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게 하여 물의 흐름을 따라 배를 돌릴(方舟) 수 없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을 올라오게 하여 좁

10) 사료 <A-①>에서 보듯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맞이하여 의자왕은 ‘나가서 맞아 싸움과 수비하는 것의 마땅한 계책’을 묻고 있다(‘問戰守之宜’). 그에 따라 의직과 상영도 어느 쪽과 맞서 싸우고, 어느 쪽은 지키며 시간을 벌 것인가를 각각 논하고 있는데, 이로써 볼 때 의자왕과 의직, 상영 등 세 사람의 전략은 동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11) 김영관, 『황산벌 출정에서 백강구전투까지』, 『백제실록 의자왕』(부여군 백제신서 5), 2008, 235쪽.

은 길을 따라 말을 가지런히(並馬) 할 수 없게 함과 같지 못합니다. 이때를 기다려 공격하면 마치 조롱 속의 닭을 잡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럴 듯이 여겼다. 또한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白江)과 탄현(炭峴)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死士)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으로 나아가게 했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사료 B〉는 계책을 묻는 의자왕에게 성충과 마찬가지로 흥수(興首)가 ‘당군은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사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 제안하자 이에 대한 대신(大臣)들의 반응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대신들은 성충이나 흥수는 물론이고 의직이나 상영과도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군은 백강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신라군사는 탄현을 넘어서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만큼 백제 조정 내부의 논의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당군과 신라군을 동시에 대적하기보다는 당군과 신라군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진격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당군과 신라군이 ‘연합’하는 것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백제의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백강 안으로 당군을 끌어들이고 신라군은 탄현에 올라서게 하여 동시에 일망타진하자는 쪽으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군이 사비도성을 향하여 백강을 거슬러 올라온다면, 그것은 대신들이 비유한 것처럼 ‘조롱 속의 닭’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백강처럼 그리 크지 않은 강에서는 함대가 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만큼 불화살 같은 것으로 함대를 공격하면 손쉽게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함대에서는 강변에 매복해 있는 군사를 쏘야 하는 반면에 강변에 매복해 있는 군사는 함대만 맞히면 되는 만큼, 백제군이 백강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군이 백강을 거슬러 올라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조롱

12) 이희진, 앞의 책, 동아시아, 2004, 249~250쪽.

속의 닭'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탄현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탄현을 올라서면 좁고 긴 구조곡(構造谷)이 이어졌던 듯하다. 좁아서 말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좁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陣)을 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당시는 진(陣)을 치고 전투가 이루어졌던 만큼¹³⁾ 진을 칠 수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다름없었다. 대신들의 주장에 의자왕이 그럴 듯하게 여겼던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의자왕도 이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백제 조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이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든 사실이다. 이제 의자왕으로서 성충과 홍수가 제시한 계책은 써볼 수가 없게 되었다. 대신들이 제시한 탄현 방면의 계책도 쓸 수 없게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군을 기벌포로 상륙하게 유도한 다음 먼저 당군과 결전하고자 했던 의식의 계책도 불가능해졌다. 자연히 상영의 계책만이 남은 셈이다.

그런데 상영이 제시한 원래의 계책은 신라군을 적당한 곳에서 막아 세우는 대신 당군은 상륙을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기벌포만 장악하고 있으면 당군은 상륙도 하지 못한 채 백강 하구에서 발이 묶일 줄 알았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당군은 기벌포로의 상륙을 포기한 채 백강 안으로 진입해 버렸다. 상영을 비롯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백제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물론 당군이 백강 안으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기벌포 이외에 마땅히 상륙할 장소는 없었다. 그렇다고 사비도성까지 백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앞서 대신들이 설명한 대로 '조룡 속의 닭'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었다. 따라서 당군은 중간에 상륙을 시도하였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13) 서영교, 「나당전쟁기 唐 兵法의 도입과 그 의의」, 『韓國史研究』116, 2002.

백강에서는 기벌포 이외에 상륙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평소 같으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良圖가 버들로 엮은 자리를 깔아 군사들을 진군시킴으로써 마침내 상륙할 수 있었다.¹⁴⁾ 상영을 비롯한 백제의 군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도 이처럼 良圖와 신라군이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다급해진 의자왕은 계백에게 결사대(死士) 5천을 이끌고 나아가 신라군을 막게 했다. 이제 백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라군의 진격을 저지하여 신라군과 당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¹⁵⁾ 당군과 신라군이 '연합'하는 것을 막고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 의자왕의 전략이었던 만큼, 신라군의 진격을 늦추면 늦출수록 승산은 백제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계백과 5천 결사대는 현실적으로 백제와 의자왕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당군이 상륙에 성공한 이상 당군과 맞서 싸워 그들의 진격을 저지하기보다는 신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원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신라와의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이들을 결사대(死士)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실상

(1) 황산벌의 위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백제는 당군과 신라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구사하였다. 최상의 방법은 탄현과

14) 『三國史記』 권42, 「列傳」 2, 金庾信 中.

15) 당시 김유신이 이끌고 온 신라의 5만군을 당군의 보급부대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이희진, 앞의 책, 2004, 235쪽). 이러한 견해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라면 백제가 신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관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벌포를 봉쇄함으로써 양 군이 합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지만 백제 조정에서 전략회의를 하는 사이 당군과 신라군은 빠른 속도로 이곳을 돌파해 버렸다. 최선의 계책을 상실한 백제는 원정을 떠난 당군의 약점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신라군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다. 18만이라는 전대미문의 대병력을 맞이한 백제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이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5천의 '결사대'와 계백이 선택한 최후의 결전장은 황산벌이었다. 그렇다면 그 황산벌은 어디일까.

종래에 황산벌의 위치에 대해서는 계백이 설치한 3영(營)을 산직리산성(山直里山城)·웅치산성(熊峙山城)·황령산성(黃嶺山城)으로 보든가¹⁶⁾ 황령산성(黃嶺山城)·산직리산성(山直里山城)·모촌리산성(茅村里山城) 등으로 보고,¹⁷⁾ 이 세 산성의 서쪽인 논산시 양촌면 신량리(新良里) 일대로 보아왔다.¹⁸⁾ 확실히 황산벌이 조선시대 연산현(連山縣) 관할하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다음을 보자.

C. 황산(黃山)은 일명 천호산(天護山)이라고도 하는데, 현 동쪽 5리에 있다. 신라의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소정방과 더불어 백제를 공격하니, 백제의 장군 계백이 황산 벌판에서 신라의 군사를 방어할 때에 3개의 병영을 설치하고 네 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끝내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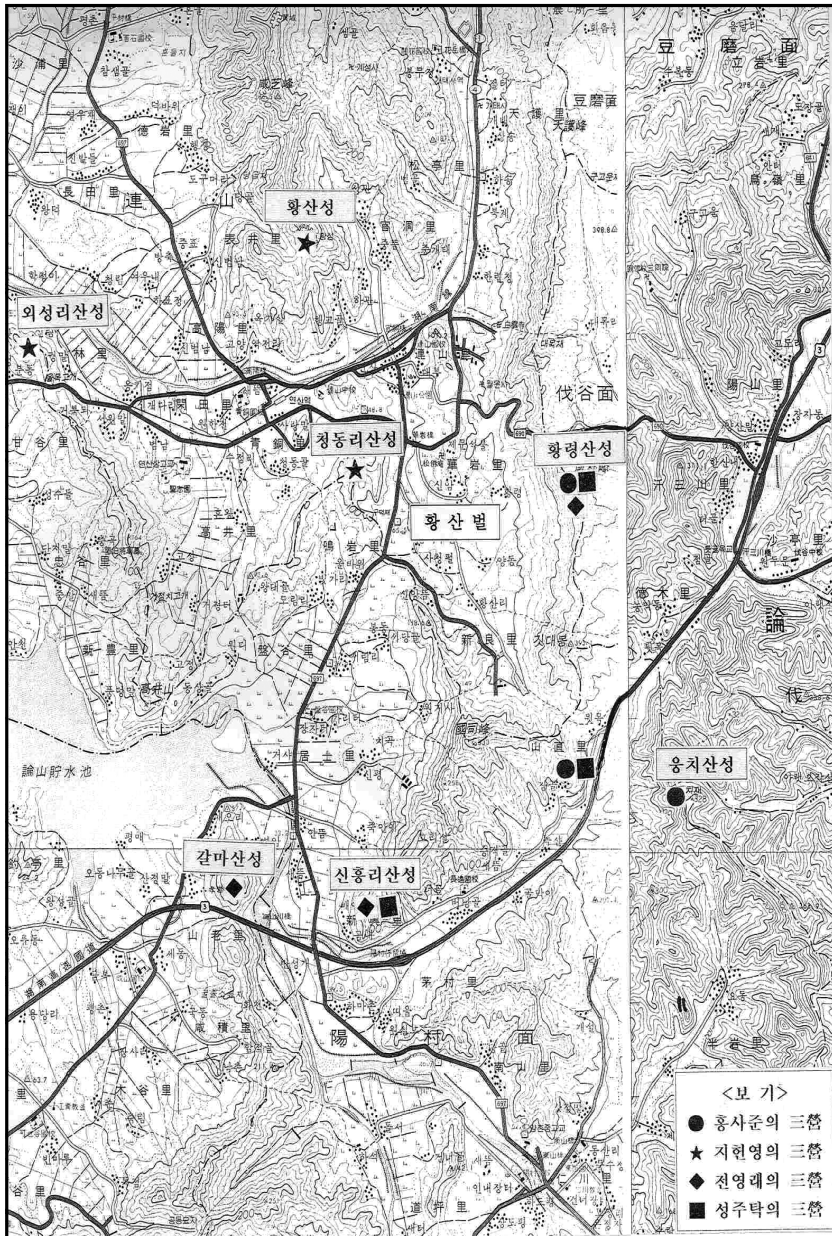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8, 「連山縣」山川條)

〈사료 C〉에서 보면 백제의 황산벌은 조선시대의 연산현 관할하의 '黃山' 근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황산벌'의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신라군의 출발점과 그 출발점에서 연산현의 '황산'에 이르는 길을 재검토해 보면 황산벌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16) 洪思俊, 「炭峴考」, 『歷史學報』35·36합집, 역사학회, 1967.

17) 成周鐸, 「百濟 炭峴 小考」, 『百濟論叢』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18) 홍사준, 앞의 논문, 1967; 성주탁, 위의 논문, 1990, 20쪽; 충남대 백제연구소, 『論山黃山벌戰蹟地』, 2000, 1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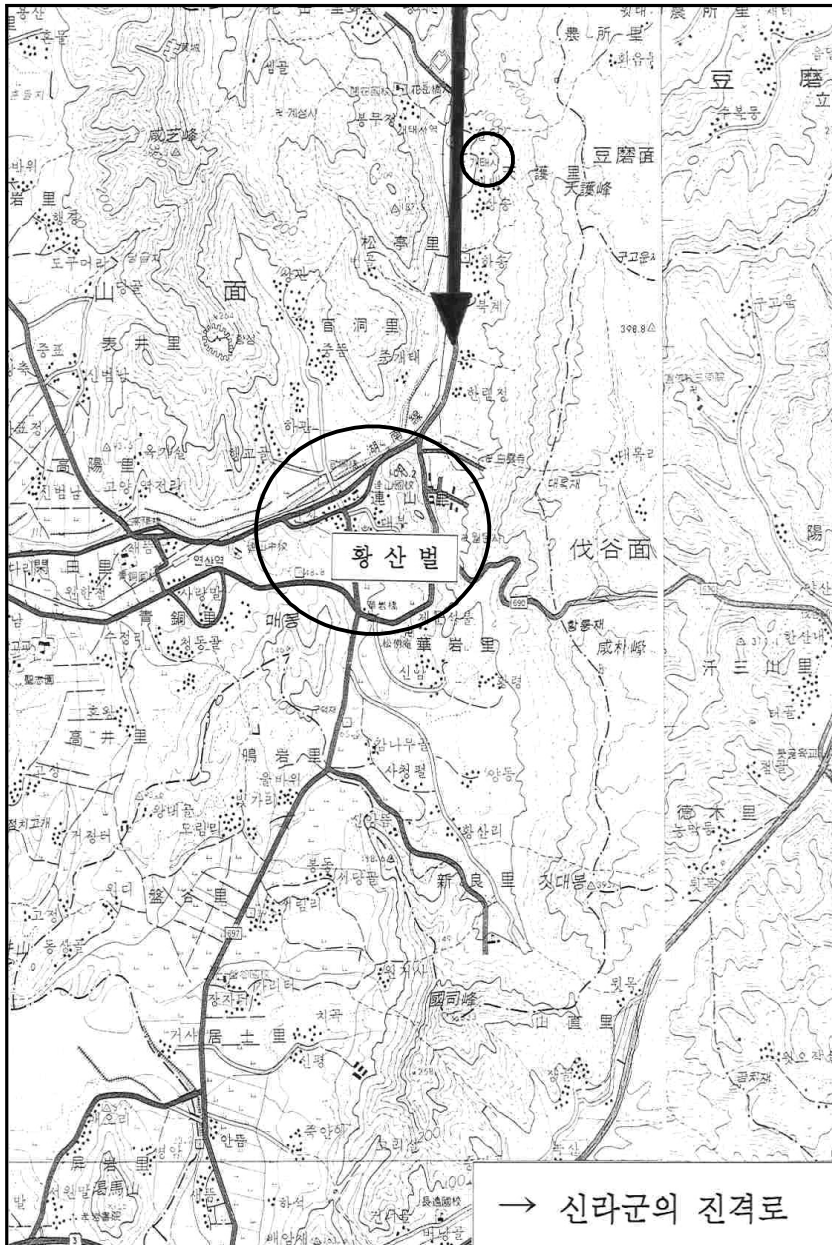


<그림 1> 황산별의 위치와 三營에 대한 제 견해

당시 신라군이 출발했던 곳은 충북 보은(報恩)의 삼년산성(三年山城)이었다.¹⁹⁾ 그런 점에서 삼년산성에서 연산(連山)에 이르는 길을 추론해 보면 삼년산성 - 옥천 - 대전 흑석동(黑石洞山城 = 眞峴城) - 개태사 - 연산이 된다.²⁰⁾ 자연히 문제의 탄현은 옥천과 대전 사이의 마도령(馬道嶺)일 가능성이 크다.²¹⁾ 이러한 추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황산벌의 위치도 현재의 신암리(莘岩里)·신량리(新良里) 일대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구체적으로 백제군이 신라군을 맞아 싸운 황산벌은 어디일까.

필자는 한때 신암리·신량리 일대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간 연산리(連山里) 일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다.²²⁾ 대전에서 개태사 앞을 지나 연산을 거쳐 강경 쪽으로 진군하였다면 대전을 거쳐온 신라군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은 연산리 일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산리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넓은 들판만 펼쳐져 있어 10배나 많은 적을 상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흥수(興首)가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19) 梁起錫, 「삼년산성의 역사성과 연구성과」, 『三年山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217쪽; 盧重國,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48쪽.
 20) 대전 동부 지역 고대 교통로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徐程錫, 「炭峴에 대한 小考」, 『中原文化論叢』 7輯,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3; 李販燮, 「三國時代 山城과 古代의 交通路에 대한 考察」, 『湖西考古學』 13, 호서고고학회, 2005; 李販燮, 「三國時代 山城의 監視半徑에 대하여」, 『湖西考古學』 15, 호서고고학회, 2006; 김기섭, 「백제의 교역·교통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21) 池內宏, 「白江及び炭峴について」, 『滿鮮地理歴史報告』 14, 1933, 134~152쪽;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1959, 433쪽; 池憲英, 「炭峴에 對하여」, 『語文研究』 6, 1970, 87~118쪽;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古代篇), 一潮閣, 1982, 292쪽; 徐程錫, 위의 논문, 2003, 92~96쪽;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일지사, 2004; 김영관, 위의 논문, 2007, 251쪽.
 22) 徐程錫, 「百濟山城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歷史教育』 91, 2004, 151쪽.



〈그림 2〉 신라군의 진격로와 황산벌의 위치

그런 점에서 연산리 일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종래에 신암리·신량리 일대로 보아왔던 위치를 <그림 2>처럼 약간 북쪽으로 끌어올려 보았다.

그런데 황산벌전투의 전개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림 2>의 작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태사 일대가 아닌가 한다. 이곳이야말로 5천의 군사가 5만의 군대를 맞아 싸워도 결코 불리할 것이 없는 결정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황산벌전투의 실제 모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2) 황산벌전투의 실상

그러면 실제로 황산벌전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사료에도 보이듯이 황산벌전투는 황산벌에 먼저 도착한 계백이 3영(營)을 설치하고 신라군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었다. 황산벌전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들이 참조된다.

D-① 황산벌(黃山之野)에 이르러 삼영(三營)을 설치하고 신라의 군사와 맞서 싸울 때 여러 사람에게 맹세하기를 “옛날 구천(句踐)은 5천의 군사로 오(吳)나라 70만 군사를 격파하였다. 오늘은 마땅히 각자 용기를 다하여 싸워 이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하였다. 드디어 힘을 다하여 싸우니 한 사람이 천 명을 당해냈다. 신라 군사가 이에 물러났다. 이와 같이 진퇴를 4번이나 하였으나 마침내 힘이 다하여 죽고 말았다.

(『삼국사기』 권47, 「열전」 7, 계백)

D-② 관창(官昌)은 신라 장군 품일(品日)의 아들이다... 당 현경(顯慶) 5년 경신(庚申, 660)에 왕이 군사를 내어 당군과 더불어 백제를 칠 때 관창을 부장으로 삼았다. 황산벌(黃山之野)에 이르러 양쪽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자 아버지 품일이 말하기를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과 기개가 있다. 오늘이 바로 공명을 세워 부귀를 취할 수 있는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을손가?” 하였다.

관창이 “예” 하고는 곧바로 말에 올라 창을 빗겨들고 적진으로 곧바로 진격하여 말을 달리면서 몇 사람을 죽였으나 상대편의 수가 많고 우리 편이 수가 적어 적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로 백제의 원수(元帥) 계백의 앞에 끌려갔다… 관창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까 내가 적진 속에 들어가서 장수의 목을 베지 못하고, 그 깃발을 꺾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고는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 마시고 다시 적진(敵陣)에 돌진하여 민첩하게 싸우니 계백이 잡아서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어 보냈다. 품일이 그 머리를 손으로 붙들고 소매로 피를 닦으며 말하기를 “우리 아이의 얼굴과 눈이 살아 있는 것 같다. 능히 왕실의 일에 목숨을 바쳤으니 후회가 없다” 하였다. 삼군(三軍)이 이를 보고 용기를 내어 뜻을 세워 북을 요란하게 쳐 진격하니 백제가 크게 패하였다.

(『삼국사기』 권47, 「열전」 7, 관창)

D-③ 김령운은 사량(沙梁)인으로 급찬(級澗) 반굴(盤屈)의 아들이다. 할아버지인 각간 흠춘(欽春)〈또는 흠순(欽純)이라고도 한다〉은 진평왕 때 화랑이 되었는데… 가을 7월 황산벌(黃山之原)에 이르러 백제 장군 계백을 만나 싸움이 불리하여지자 흠춘이 아들 반굴을 불러 말하였다. “신하로서는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자식으로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모두 이루어진다.” 반굴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적진(敵陣)에 들어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

(『삼국사기』 권47, 「열전」 7, 김령운)

D-④ 또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死士)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黃山)에 나아가 신라군과 싸우게 하였다. 4번을 싸워 모두 이겼으나 병사가 적고 힘도 꺾이어 드디어 패하고 계백도 죽었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D-⑤ 법민(法敏)이 돌아와 정방(定方)의 군대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하자 왕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태자(太子)와 대장군 유신, 장군 품일(品日)과 흠춘(欽春)〈춘(春)을 순(純)으로도 썼다〉 등에게 명하여 정병(精兵) 5만을

거느리고 가서 응원케 하고 왕은 금돌성(今突城)에 가서 머물렀다. 7월 9일에 유신 등이 황산벌(黃山之原)로 진군하니 백제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3영(營)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3도(道)로 나누어 4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고 군사들은 힘이 다 빠지게 되었다. 장군 흡순(歙純)이 아들 반굴(盤屈)에게 말하기를… 반굴이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는 이내 적진으로 들어가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좌장군 품일(品日)이 아들 관장(官狀)〈관창(官昌)이라고도 하였다〉을 불러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내 아들은 나 이 겨우 열 여섯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삼군(三軍)의 모범이 되리라.” 관장이 “예!” 하고는 갑옷 입힌 말(甲馬)을 타고 창 한 자루를 가지고는 쏜살같이 적진(敵陣)에 달려들어 갔다가 적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 포로로 계백에게 끌려갔다… 삼군(三軍)이 이를 보고 분에 북받쳐 모두 죽을 마음을 먹고 북치고 고함지르며 진격하니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조)

〈사료 D〉에서 보면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군이 황산벌에 도착한 것은 660년 7월 9일이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미 계백을 비롯한 백제군이 먼저 황산벌에 도착하여 험한 지형을 거점 삼아 3영(營)을 설치하고 신라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황산벌의 위치나 황산벌전투를 논의할 때 한결같이 전투가 산성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왔다. 신라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백제군이 설치했다는 3영(營)을 3개의 백제 산성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3영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신라군에 비해 훨씬 병력이 부족했던 만큼 계백과 백제군사들이 산성을 근거로 방어전을 펼쳤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황산벌전투를 전하는 〈사료 D〉를 세심히 살펴보면 산성을 근거로 농성전(籠城戰)을 전개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전장(戰場)을 한결같이 황산벌(‘黃山之野’, ‘黃山之原’)로 설명하고 있다. 황산벌

전투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료 D-⑤>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백제군이 신라군의 진격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따라 신라군보다 먼저 황산벌에 도착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어디에도 산성에서 농성한 흔적은 없으며, 산성에서 1차적으로 싸우고 불리해지자 황산벌로 후퇴하여 제2차전을 전개한 흔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료 <D-②>, <D-③>, <D-⑤>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사료에서 전하는 반굴이나 관창의 전투 장면은 두 사람이 백제의 진(陣)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전사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만 산성에서의 공성전(攻城戰)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황산벌전투는 말 그대로 황산벌(黃山之野, 혹은 黃山之原)에서 싸운 것이지만 산성에서의 전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홍수의 얘기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E. 홍수(興首)가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수가 많고 군대의 기율도 엄하고 분명하며, 더구나 신라와 함께 모의하여 앞뒤에서 호응하는 형세(掎角之勢)를 이루고 있으니, 만일 평탄한 벌판과 넓은 들(平原廣野)에서 마주 대하여 진을 친다면 승패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백강(白江)<혹은 기벌포(伎伐浦)라고도 하였다>과 탄현(炭峴)<혹은 침현(沈峴)이라고도 하였다>은 우리의 요충지여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라도 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사료 E>는 의자왕이 계책을 묻자 홍수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장면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홍수는 백제가 평원광야(平原廣野)에서 나당연합군을 대적하면 승부를 알 수 없을 것이니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탄현에서의 방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평원광야(平原廣野)’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더라도 만 명이 당할 수

없는(一夫單槍 萬人莫當) 탄현을 강조한 것은 특별하다고 할 것이 없지만 갑자기 왜 홍수는 평원광야(平原廣野)에서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일까.

홍수가 탄현과 백강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굳이 평원광야에서의 대적을 경고한 것은, 역으로 그때까지의 일반적인 전투가 바로 '평원광야'에서 진을 치고 싸우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시 말해서 종전까지의 대부분의 전투가 산성에 들어가 농성전을 벌이는 것이었다면 이때 홍수의 건의도 '종전처럼 성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탄현을 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전투가 '평원광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종래에 해 오던 전투방식대로 '평원광야'에서 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탄현에서 적을 막으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에서는 '평원광야'라는 문구에만 현혹되어 홍수가 말한대로 '평원광야'가 아닌 산성에서 농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견해가 표출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의 전투 방식을 성곽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투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²³⁾ 그러나 그러한 성곽전은 수·당과 고구려에서 보듯이 국경선에서 도성에 이르는 거리가 멀 때 효율적인 전법이였다. 신라나 백제처럼 국경에서 왕도(王都)에 이르는 거리가 짧을 경우 성곽전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백제나 신라에서는 성곽전이 아닌 평야에서의 전투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²⁴⁾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 점을 오해했다. 그런 점에서도 앞에서 사료의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황산벌전투는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던 성곽전이 아니었다. 사료에서 누차 밝히고 있듯이 말 그대로 '黃山之原'이었다고 믿어진다.

실제로 의자왕의 전략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당시 백제군은 산성에 들어가 농성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어떻게

23) 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2001, 135~231쪽.

24) 대표적인 것으로 553년에 있었던 백제의 대고구려전투를 꼽을 수 있다(『日本書紀』卷 19, 欽明紀 14年 10月條).

해서든,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신라군의 진격을 저지해야만 했다. 백제군이 산성에 들어가 농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신라군의 입장에서는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고 있는 백제군을 하나하나 함락시키면서 전진할 여유가 없었다. 당군과 약속한 날짜에 합류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만약 백제군이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놓아둔 채 진격하였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산성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적군을 뒤에 그대로 놓아둔 채 전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이때만큼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당군과 만나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군은 전대미문의 13만이라는 대병력을 갖고 있었다. 군이 백제군사가 농성하고 있는 산성 하나하나를 격파하지 않고 곧장 사비도성으로 진격해도 의자왕을 손쉽게 포로로 잡을 수 있는 대병력이었다. 신라군이 산성의 백제군을 놔두고도 자신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계백과 5천 결사대는 산성에 들어가서 농성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사료 D>에서 보는 것처럼 황산벌에 3영을 설치하고 신라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시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는 현격한 병력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²⁵⁾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소에 진(陣)을 쳤을 것이다. 사료 <D-⑤>에서 말하는 ‘험한 곳을 차지하여 3영을 설치’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평원광야’에서의 전투는 홍수도 꺼려했던 만큼 계백과 5천 결사대 역시 이러한 평원광야가 아닌 ‘험지(嶮地)’에 진을 치고 신라군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백과 백제군이 선점하고 있었다는 ‘험지(嶮地)’는 어떤 곳일까. 삼국시대의 전투란 기병과 보병이 합동작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⁶⁾ 당시 신라군에도 이러한 기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료 <D-

25) 이와 달리 당시 황산벌전투에는 계백만 참전한 것이 아니라 좌평 충상(忠常)과 상영(常永)도 참전하였던 만큼 이들이 거느린 병력도 각각 5천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문기, 『泗泚時代 百濟의 軍事組織과 그 運用』, 『百濟研究』28,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8, 283쪽).

26) 임용한, 앞의 책, 2001, 31~53쪽.

⑤)에서 보면 당시 신라군은 정병(精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관창과 반굴의 활약상을 보면 두 사람 모두 말을 타고 백제군의 진지를 향해 돌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D-⑤>에서 보듯이 관창은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백제군을 향해 돌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신라군에는 중무장한 기병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투에서 기병들이 하는 역할이란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상대편의 밀집대형을 허무는 일이었다.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전투는 보병들이 대오를 이루면서 밀집대형을 형성한 다음 상대편 밀집대형을 먼저 허무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었다. 이때 상대편의 밀집대형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바로 기병이었다.²⁷⁾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대를 먼저 내보내 보병으로 이루어진 상대편 밀집대형의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함으로써 밀집대형을 허무는 것이 희생을 줄이고 손쉽게 승리하는 최선의 전투방식이었다. 신라의 5만군 속에 기병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백제군은 이러한 기병전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군은 신라의 기병부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소에 진을 쳤을 것이다. 백제군이 황산벌에 먼저 도착하여 '험지(嶮地)'를 택해 3영을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백제군은 신라군보다 황산벌에 먼저 도착해서 3영을 설치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을 택해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기병을 만났을 때 보병들의 취약점은 전면(前面)이 아니라 후면(後面)과 측면이다. 그런 점에서 앞은 평야로 되어 있으며 좌우 측면을 신라의 기병에게 허용하지 않는 지형이 백제군이 택할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다. <그림 2>의 작은 원 안에 있는 개태사 일대를 황산벌로 보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²⁸⁾

27) 임용한, 앞의 책, 2001, 33쪽.

28) 후백제와 최후의 결전을 벌인 후 왕건이 친히 지은 '開泰寺華嚴法會疏'에 의하면 '黃山에 말을 묶고, 이곳에 둔영하나...(繫馬黃山 屯營此地)'라고 한 것을 보면 왕건도 개태사가 있는 곳에서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金甲童, 『高麗 太祖 王建과 後百濟 神劍의 戰鬪』, 『蒼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論叢』, 1997.
윤용혁, 앞의 논문, 2004 : 『충청역사문화연구』, 서경문화사, 271~278쪽.

이곳은 서쪽으로 계룡산지가 남북방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산봉(山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연산(連山)'이 역시 남북방향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곳이다. 두 산지 사이의 구조곡(構造谷)인 셈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3영(營)으로 막게 되면 신라의 기병들은 좌우가 산지(山地)로 막혀 있기 때문에 백제군의 측면을 공격할 수 없게 된다. 계백이 황산벌을 최후의 결전지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측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신라군은 백제의 밀집대형을 정면에서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아무리 기병이라지만 잘 훈련된 보병을, 그것도 측면 공격이 허용되지 않는 밀집대형 형태의 보병을 정면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병에 맞서 보병에게는 장창(長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협지'를 차지하고 결사 항전하는 5천의 백제군을 돌파하기란 신라로서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평소의 전투처럼 백제의 3영을 동시에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D-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제가 3영을 설치하고 저항하자 신라 역시 3도로 나누어 백제군을 공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보병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해 줄 '협지'를 차지하고 결사항전하는 백제의 밀집대형을 맞이하여 좌우 측면이 아닌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는 결코 승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신라군이 연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3번을 더 공격하였는지, 아니면 첫 번째 공격 실패 후 작전을 바꾸어 백제의 좌영(左營), 중영(中營), 우영(右營)을 각각 한 번씩 공격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3영 중 어느 하나만 허물어지면 나머지 두 개도 함께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실패 후 각 진영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공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첫 번째에는 3도로 나누어 3영 전체를 공격하고, 그 뒤로는 진영(陣營) 하나씩을 공격해 보는 사이 신라군은 4전 4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신라가 취할 수 있는 비책은 없었다. 당군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백제군은 신라군을 격퇴시키기 보다는 진격을 저지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한 것은 신라 쪽이었다.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신라 지휘부에서는 최후의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최후의 선택이란 기병을 빼고 신라군 역시 보병으로 이루어진 밀집대형을 형성한 다음, 백제의 밀집대형과 직접 맞부딪치는 전법이였다. 밀집대형을 형성한 보병과 보병끼리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법은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이나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전법이였다. 따라서 보통 때 같았으면 쓰지 않았을 전법이지만 시간에 쫓긴 신라 지휘부로서는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기병부대 보다는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단시일 내에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보병전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료 <D-②>와 <D-③>에 보이는 관창과 반굴의 어이없는 희생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사료 <D-②>와 <D-⑤>에 의하면 관창과 반굴의 희생 이후 분에 복받친 신라의 삼군(三軍)이 모두 죽을 마음을 먹고 진격하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5만의 신라군과 5천의 백제군이 밀집대형을 형성하고 정면으로 부딪쳤음을 알 수 있다. 사료 <D-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번 싸워 4번 모두 이겼던 백제 군사들이 마침내 ‘군사가 적고 힘도 꺾이어’ 패하고 말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라군 역시 백제 못지않은 희생이 뒤따랐을 것이다.

4. 맺 음 말

황산벌전투는 관산성전투, 백촌강전투와 더불어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은 3대 전투 중의 하나다. 관산성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이 기정 사실화되었고, 백촌강전투의 패배로 백제 부흥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황산벌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백제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백제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 황산벌전투

지만 정작 그에 대한 기록은 지극히 소홀하여 그 무대가 되었던 황산벌이 어디인지, 백제군은 왜 최후의 결전지로 황산벌을 택하였는지, 백제는 어떻게 10배나 넘는 신라군을 상대로 4번 싸워 모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울러 최후의 전투에서는 왜 패하고 말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련 기록은 물론이고, 황산벌전투에 이르게 된 직전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황산벌전투를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이 현실화되었던 660년 7월, 백제의 입장에서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최선의 전략은 당군과 신라군이 서로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전을 피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충과 홍수가 제시했던 탄현과 백강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었다. 그러나 최선의 계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이 당군은 백강 안으로 진입해 버렸고, 신라군 또한 이미 탄현을 지나게 되었다. 이로써 백제로서는 최선의 카드를 써 보지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자왕과 백제는 새로운 계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신라군이 당군의 보급을 책임진 것이 사실이라면, 신라군과 당군의 합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승산은 오히려 백제 쪽에 있었다. 설령 신라군이 당군의 보급을 책임진 것이 아니더라도 당군과 신라군의 합류를 지연시키면서 장기전에 돌입하면 원정군으로서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신라군의 진격을 동부전선 가까이에서 저지시킬 수만 있다면 백제로서는 당군과 적당히 타협하여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황산벌전투 후 나당연합군이 사비도성에 이르기 전에 백제에서 세 차례나 당나라 진영에 사람을 보내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백제 쪽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하였던 만큼 황산벌로 출전하였던 계백과 5천 명의 군사들은 말 그대로 결사대(死士)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라군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나당연합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들의 가장

큰 임무였다. 그것은 또한 의자왕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출전에 앞서 가족들을 모두 희생시킨 계백의 행동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시인한 이적행위가 아니라 5천 결사대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몸소 보여준 행동이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5천 결사대는 신라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였던 만큼 가능한 한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최후의 결전장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러면서도 신라군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장소여야 했고, 10배나 많은 신라군을 적은 수로도 저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으며, 신라군의 기병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다. 황산벌이 최후의 결전장으로 선택된 것도 그 때문이다.

최후의 결전장에 먼저 도착한 백제군은 신라의 기병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곳에 3영(營)을 구축한 채 신라군을 기다렸다. 그런 점에서 황산벌은 종래에 논의되어 온 연산면 신암리·신량리 일대라기보다는 계룡산지와 연산(連山)에 의해 형성된 개태사 앞의 구조곡(構造谷)이 아닐까 한다. 산봉(山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연산(連山)’의 맨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황산(黃山)이다. ‘황산벌’은 이 ‘황산’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이곳은 936년에 고려 태조와 후백제군이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거니와 이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하고 난 뒤 태조는 황산을 천호산(天護山)으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북에서 남하하는 군사를, 그것도 더 많은 군사를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구조곡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시간상으로 보면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신라군을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백과 백제군이 황산벌을 최후의 결전지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당군과 합류할 날짜와 시간을 정한 신라군은 황산벌에 도착한 다음에야 백제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기병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백제군의 밀집대형을 붕괴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작전을 미리 예측하고 자연지형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백제가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만큼 신라군의 백제 공격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4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다. 백제군의 3영(營)을 3도(道)로 나누어서 공격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신라군은 백제군 전체와 맞서 싸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각 진영 하나하나를 공략했을 것이다. 3영 중 하나만 붕괴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 신라의 기병이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라군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진영에 대한 개별적인 공격도 여의치 않게 되고, 그러는 사이 백제군은 4번 싸워 4번 모두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신라군은 당군과 합류할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만큼, 시간에 쫓긴 나머지 신라군 지휘부는 마침내 보병 대 보병의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보병 대 보병의 전투에서는 기병 대 보병의 전투와는 달리 자연지형이 별다른 이점이 될 수 없었던 만큼 수적으로 열세였던 백제군의 패배는 자명한 일이었다.

(원고투고일 : 2010. 3. 30, 심사수정일 : 2010. 5. 3, 게재확정일 : 2010. 7. 27)

주제어 : 황산벌, 황산벌전투, 의자왕, 나당연합군, 전략, 탄현(炭峴), 백강(白江), 기벌포, 3영(營), 5천 결사대

<ABSTRACT>

The Strategy of King *Uija* and the Actuality of the *Hwangsanbeol* Battle

Seo, Jeong-seog

The *Hwangsanbeol* Battle was one of the decisive battles as well as the *Gwansanseong*(管山城) and *Baekchongang* River(白村江) Battles. However, it is unclear where the exact place was, why the *Baekje* chose it for the last battle field, how the *Baekje* could win the battle four times although they had only one tenths of soldiers against the *Silla* soldiers, and why the battle ended in the defeat of the *Baekje*, finally. Therefore, this study reenacted the *Hwangsanbeol* Battle from historic records and close considerations of the background.

The best military strategy that King *Uija*(義慈王) of *Baekje* could establish was the prolonged war obstructing the *Silla* Dynasty and Tang(唐), China Combined Forces when the *Baekje* came under attack by the Combined *Silla* and Tang Forces in July, 660. The loyalists *Seongchung*(成忠) and *Heungsu*(興首) suggested that the enemy should not capture the *Tanhyeon*(炭峴) and *Baekgang* River(白江) to make this strategy a success. However, the Tang(唐) Forces already occupied the *Baekgang* River, and the *Silla* passed already the *Tanhyeon* while the *Baekje* was discussing and finding the best solution. This resulted that the *Baekje* should make a new strategy, so the *Hwangsanbeol* Battle was brought out.

The *Hwangsanbeol* Field is estimated as the area around the Gaetaesa Temple(開泰寺) in *Yeonsan*(連山), *Nonsan* City(論山市), and this area was formed by tectonics valley including *Hwangsan* Mountain(黃山). The

topographical feature of this area c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Baekje* to keep off the enemy although the *Silla* soldiers numbered ten times more than the *Baekje*'s. This was the main reason why the General *Gyebaek*(階伯) of *Baekje* chose this area for the last battle field.

Three units of the *Silla* Calvary Forces were supposed to attack the Three Military Camps(三營) of the *Baekje* infantry at one time, and then individual Camps, separately. Four times attacks of the *Silla* ended in failure. And the *Silla* infantry finally took the ultimate attack against the *Baekje*. The last battle resulted the final defeat of the *Baekje* despite the prior victories of four battles against the *Silla*.

Key Words : *Hwangsansbeol*, *Hwangsansbeol* Battle, King *Uija*(義慈王), *Tanhyeon*(炭峴), *Baekgang* River, *Gibeolpo*, Three Military Camps(三營), Five Thousand Do-or-Die Corps(5천 결사대)